



# 올 시즌 '大盜'가 사라졌다

올 시즌들어 프로야구 그라운드에서 누(壘)를 훔치는 '대도(大盜)'들이 사라지면서 야구의 백미인 주루 플레이의 박진감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어느해보다 뚜렷해진 투고타저의 현상이 가장 큰 이유지만 각 팀들이 부상 위험과 실패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도루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일권-이순철-이종범 등으로 이어지는 대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발 빠른 후배들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24일 현재 도루부문 1위는 지난해 43개로 도루왕에 오른 LG의 박용택으로 36경기에서 9개를 훔쳤다. 이를 산술적으로 따지면 올 시즌 많아야 32개에 그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일권-이순철-이종범으로 이어지는 대도 계보를 탄생시킨 KIA 타자들도 도루가 주춤한 상태.

이종범이 6개로 팀내 도루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이용규가 도루 5개다.

지난해 이종범의 도루가 28개, 이용규가 31개 었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숫자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가장 적은 숫자로 도루왕 타이틀을 거머쥔 이는 1984년 김일권(전 해태)으로 41개였다. 하지만 당시 전체 경기수는 100경기에 불과했다.



## 부상위험·실패 많아 도루 기피현상 뚜렷 경기 박진감 떨어져

그렇다면 이같은 도루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단 전반적으로 주자들이 안 뛰고 벌 선수들이 적다는 것이다.

해태시절인 지난 94년 84개, 96년 57개, 97년 64개로 도루왕에 오르며 '바람의 아들'이란 애칭을 얻었던 이종범(KIA)은 벌써 나이가 서른 여섯으로 전성기시절의 활약을 기대하긴 어렵다.

김일권을 필두로 이순철-전준호-이종범-정수근으로 이어온 대도(大盜)의 계보도 끊길 판이다.

그나마 100m를 11초대에 돌파하는 KIA의 이용규가 도루 계보를 이을 후배로 꼽히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활약을 보

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각 팀의 도루 기피현상도 감소의 큰 이유다.

각 팀 벤치의 최근 추세는 도루보다는 번트, 히트 앤드런에 의한 '작전'을 선호한다.

결국 1995년 8개 구단 도루 합계 1천13개로 정점을 찍었던 도루 레이스는 이후 하향곡선을 그렸고 2004년 지난 10년 사이 최저인 600개대(678개)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지난해에 782개로 전년보다 약간 올라섰지만 팀 도루 100개를 넘긴 팀은 LG, 두산, KIA, SK 등 4개팀에 그쳤다. 올해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668개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즌 현재 LG가 29개로 팀도루 1위를 달리고 있으나 1경기당 1도루 이상을 올린 팀은 전무하다. KIA는 올 시즌의 30%를 소화한 현 시점에서 팀 전체 도루가 총 20개로 8개 구단 가운데 하위권인 6위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 간다면 사상 최악의 팀 도루율을 보인 지난해(101개)의 숫자도 넘어서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루가 많으면 그만큼 득점 확률도 높아진다는 게 야구의 정석이다.

야구 전문가들은 야구의 흥미를 배가시키고 한국야구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대도(大盜)'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올스타 인기투표 실시 오늘부터 7월9일까지

오는 7월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2006 삼성 PAVV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나갈 선수를 뽑는 인기투표가 25일부터 7월9일까지 46일간 실시된다.

8개 구단 추천선수 80명 가운데 동군(삼성, 두산, SK, 롯데)과 서군(한화, LG, 현대, KIA)의 포지션별 최다득표 선수 10명씩 모두 20명이 팬들의 투표로 뽑힌다.

여기에 선동열(삼성) 감독과 김인식(한화) 서군 감독이 10명씩 추천한 20명이 추가돼 모두 40명의 올스타전 출전 선수가 결정된다.

올해 인기투표에서는 외야수 후보로 오른 '기록의 사나이' 양준혁(삼성)이 10년 연속 '베스트 10' 선정 기록에 도전한다.

팬들은 경기장을 찾거나 한국야구위원회(KBO), 각 구단, 스포츠전문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폰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점프볼

2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06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개막전 신세계와 우리은행의 경기에서 여름리그 개막을 알리는 점프볼 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신세계 환상의 'V' 서곡

### 김정은 25득점 맹활약...우리銀 69대61 제압

광주 신세계가 춘천 우리은행을 꺾는 이번으로 개막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신세계는 24일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개막전에서 지난 겨울리그 우승팀 우리은행을 69-61로 꺾었다.

지난 겨울리그에서 4승16패로 최하위에 그친데다 전년도 여름리그에서도 3승 17패의 부진을 면치 못했던 신세계였지만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이번 대회에서는 확 달라져 있었다.

겨울리그에서 신인이었던 김정은이 공수

에서 맹활약하며 25점을 올려 팀 승리에 앞장섰고 노장 양정욱(9점)도 슈팅 가드로 변신, 공격에 힘을 보탤다.

신세계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6-0으로 달아나 심상치 않은 기운을 예고했다.

1쿼터를 20-13으로 앞선 신세계는 2쿼터 시작부터 약 3분30초간 우리은행을 무득점에 묶어놓고 허윤자(15점)의 3점슛 2개와 김정은의 2득점을 묶어 내리 8득점, 28-13까지 점수차를 벌렸다.

그러나 전반을 24-44로 뒤진 '챔피언' 우리은행의 저력은 만만치 않았다.

3쿼터 시작과 함께 내리 8점을 보태 추격에 시동을 건 우리은행은 3쿼터 종료 44초 전에는 김계령(18점)의 골밑슛으로 50-51까지 따라붙은 가운데 쿼터를 마쳤다.

전열을 가다듬은 신세계는 4쿼터 시작부터 내리 9점을 퍼부어 60-50까지 달아나며 다시 승부의 추를 기울여 놓았다.

신세계는 경기 종료 3분13초 전 65-58까지 추격을 허용했으나 양지희(1점)와 미셀 캠벨(12점)의 득점으로 종료 1분38초 전에 68-58을 만들어 승세를 굳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선우 35일 만에 빅리그 복귀

김선우(29·콜로라도 로키스)가 빅리그 복귀전에서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 주지 못했다.

김선우는 24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원정경기에서 1-6으로 뒤진 8회말 팀의 세번째 투수로 등판했지만 1이닝동안 3안타를 맞고 2실점했다.

오른쪽 정강이 부상으로 지난 달 19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 35일 만에 빅리그에 복귀한 김선우는 예상하지 않았던 등판 때문이었는지 기대했던

호투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5점차로 뒤진 8회말 레이 김으로부터 마운드를 넘겨 받은 김선우는 첫 타자 안드레 이시어를 몸맞는 공으로 출루시키며 불안하게 출발했고 다음 타자 러셀 마틴의 중월 2루타에 1점을 내줬다.

김선우는 최희섭과 다저스에서 주전 경쟁을 한 올메도 사츠즈 타석 때 폭투를 저질러 1사 3루에 몰렸고 라파엘 페랄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 때 추가 실점했다. 콜로라도는 결국 다저스에 1-8로 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5일(목)

▲메이저리그<뉴욕Y-보스턴>(07 : 55-Xports)

▲여자농구프리리그<신한은행-국민은행>(16 : 0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니혼햄>(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삼성-한화>(18 : 00-KBS SKY SPORTS), <LG-SK>(18 : 30-MBC ESPN)

26일(금)

▲PGA투어 페덱스 세인트 주드 클래식 1R(05 : 00-SBS스포츠)

전국에 바다와 심해 폭~파졌다!
신세계 바닷가
신세계 바닷가
신세계 바닷가

텔레마케터 전문가 과정 모집
한국텔레마케터센터
문의 0621 412-3200-1